

# 2006년도 우리나라 ODA통계(확정치)의 주요 내용

(2007. 10. )

경협기획실

## 1. 공적개발원조(ODA) 규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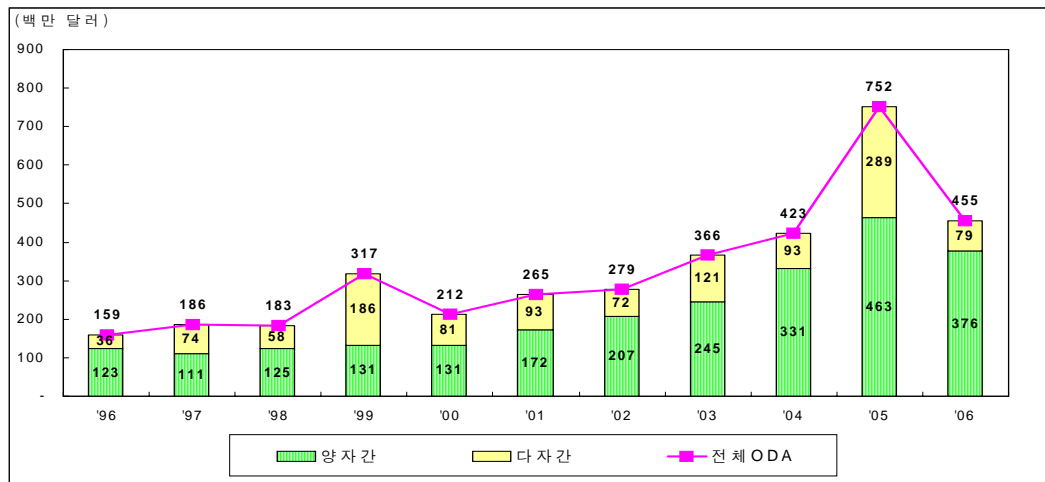
- 2006년 우리나라의 ODA 규모(순지출 기준)는 전년대비 약 40% 감소한 455.25백만 달러로서 국민총소득(GNI)의 0.05%를 기록
- 다자간 원조의 대폭 축소(전년대비 72.6% 감소)가 실적감소의 주 요인
  - 이는 2005년도의 예외적인 증가요인(IDA 및 IDB에 대한 출연·출자금 증가)이 소멸한 것에 기인
- 양자간 원조의 감소(전년대비 18.8% 감소)도 실적감소의 원인
  - 무상원조는 2005년의 일시적 증가요인(이라크 전쟁 및 동남아시아 자연재해)이 소멸되면서 전년대비 19% 감소
  - 양자간 유상원조(EDCF)의 자금 집행부진도 실적감소의 한 요인
- 2006년 ODA 규모는 예외적인 증가를 보인 2005년 이전 수준으로 회귀한 것이지만 2004년(423.32백만 달러)에 비해서는 소폭(7.5%) 상승

### 2006년도 우리나라 ODA 공여 규모 (순지출 기준)

(백만 달러)

구 성 항 목	2005년	2006년	증감율(%)	비중(%)
ODA (A+B)	752.32	455.25	△39.5	100.0
양자간 ODA (A)	463.30	376.06	△18.8	82.6
무상원조	318.00	258.95	△18.6	양자간 중: 68.9
(그중: KOICA)	(201.86)	(193.10)	(△4.3)	무상 중: 74.6
유상원조(EDCF)	145.30	117.11	△19.4	양자간 중: 31.1
다자간 ODA (B)	289.01	79.19	△72.6	17.4
(그중: 한국은행)	(239.90)	(23.04)	(△90.4)	다자간 중: 29.1
ODA/GNI(%)	0.095%	0.051%	-	-

## 우리나라 ODA의 연도별 추이 (순지출 기준)



□ 양자간 : 다자간 지원비중은 83% : 17%로 전년에 비해 양자간 원조 비중이 21% 포인트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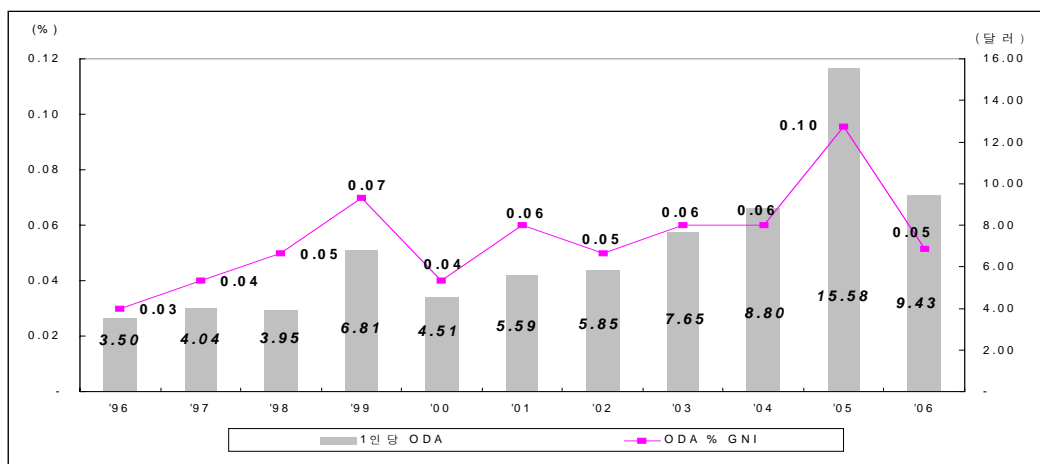
○ 양자간 원조의 절대 규모는 감소했으나 다자간 원조의 대폭 감소가 양자간 원조의 상대적인 비중을 높임

□ 2006년도 ODA/GNI 비율은 0.05%, 1인당 ODA는 9.4달러를 기록

○ 2005년도의 예외적인 원조 증가 요인이 소멸함에 따라 예년 수준으로 복귀  
- ODA/GNI 비율: 0.095% → 0.051%, 1인당 ODA: 15.6달러 → 9.4달러

○ 2006년도 OECD DAC 회원국의 평균(잠정치)인 0.30%의 1/6수준에 그침

## 우리나라의 ODA/GNI 비율 및 1인당 ODA 추이 (순지출 기준)



## 2. 원조형태별 ODA 규모 (순지출 기준)

원조형태별 ODA 규모 (순지출 기준)

(백만 달러)

양자간 원조	무 상 원 조								유 상 원 조
	프로젝트 원조	프로그램 원조	기술 협력	인도적 지원	NGO 지원	개발인식 증진	행정 비용	기타	프로젝트 원조
376.06	45.55	36.02	116.78	24.37	5.34	2.53	25.31	3.05	117.11
다자간 원조	출 연 · 출 자								양허성 차관
	UN 기구	세계은행 IBRD	기타	지역개발은행 ADB/ADF		AFDB/AFDF		기타	IMF-PRGF
79.19	42.86	0.71	-	40.70		13.21		14.19	△32.48

□ 양자간 원조는 유·무상 원조의 동반 실적 감소로 전년대비 18.8% 줄어든 376.06백만 달러를 기록

○ 무상원조는 전년대비 약 19% 감소한 258.95백만 달러를 기록

- 2005년에는 중동지역 전쟁과 남아시아 지역의 쓰나미 등 예외적인 사건발생으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, 2006년에는 이러한 일시적인 증가요인이 소멸하면서 지원규모가 감소

- 무상원조는 KOICA(193.1백만 달러), 정보통신부(10.9백만 달러), 교육인적자원부(10.4백만 달러) 등 3개 기관(부처)이 82.8%를 차지

○ 유상원조도 전년대비 약 19% 감소한 117.11백만 달러를 기록

- 2006년 EDCF의 경쟁입찰 강화에 따른 구매절차 지연으로 자금집행이 부진한 것이 유상원조 실적감소의 주 요인

- 다만, 이러한 실적감소에도 불구하고 유상원조가 양자간 원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.1%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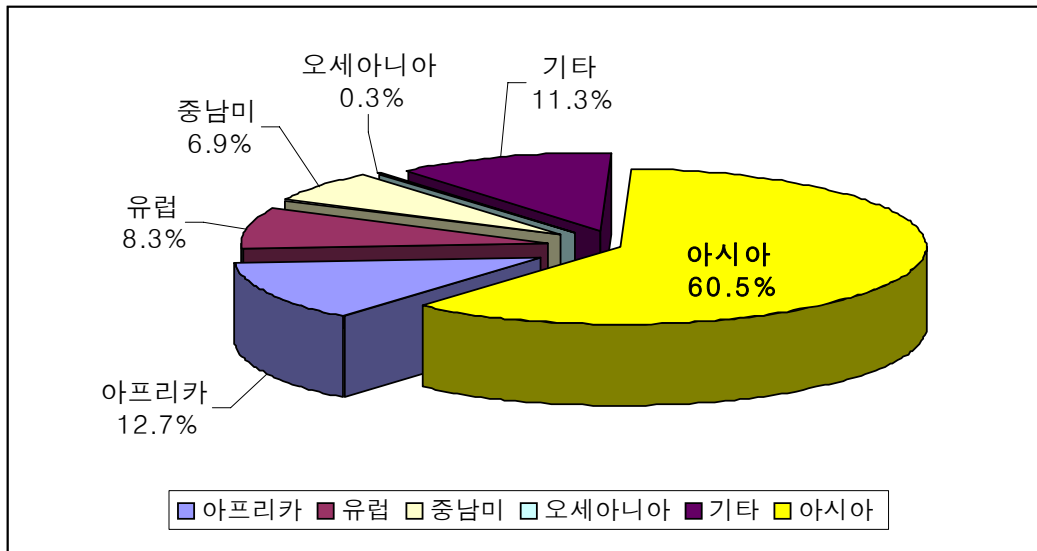
- 한편, 2006년도 EDCF 약정(승인)액은 359.22백만 달러로 전년(318.76백만 달러) 대비 12.7% 증가하여, 향후 EDCF 지출실적이 차츰 증가할 것으로 기대

- 다자간 원조는 국제금융기구 앞 대규모 출연·출자금에 없으면서 전년대비 72.6% 감소한 **79.19백만 달러**를 기록
  - 2005년의 IDA 재원보충을 위한 출자금 급증('04년: 43.7백만 달러 → '05년: 119.7백만 달러 → '06년: 없음), IDB 가입에 따른 출연·출자금 납입(81.2백만 달러) 등 일시적인 증가 요인이 소멸됨에 따라 감소
    - IMF-PRGF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양허성 차관 잔액(32.5백만 달러)의 조기상환도 다자간 원조의 감소요인으로 작용
    - 다만, 2007년에는 IDA(79.7백만 달러)와 IDB(8.3백만 달러)에 출연·출자금 납입이 약정되어 있어, 이 기구들에 대한 지원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
  - 다자간 원조는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·출자 111.67백만 달러, 국제기구에 대한 양허성 차관 △32.5백만 달러로 구성
    - 2006년에는 지역개발은행(53.9백만 달러) 및 UN 기구(42.9백만 달러)에 대한 지원이 전체 출연·출자의 86.7%를 차지

### 3. 지역별·국가별 지원규모 (순지출 기준)

- 양자간 ODA는 60.5%가 아시아에 집중되었으며, 아프리카(12.7%), 유럽(8.3%) 등이 그 뒤를 이음
  - 양자간 ODA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원은 동아시아(36.4%), 중동(31.5%), 남부 및 중앙아시아(31.4%) 등으로 구성
  - 무상원조는 아시아(65.7%)와 아프리카(10.1%)에 중점 지원되었으며, 유상원조는 아시아(49.1%), 유럽(24.8%), 아프리카(18.5%)순으로 지원됨

### 양자간 ODA의 지역별 지원비중 (순지출 기준)



### 양자간 ODA의 지역별 지원규모 (순지출 기준)

(백만 달러)

구 분	아시아	아프리카	중남미	유럽	대양주	기타*	합계
무상원조	170.0	26.1	16.5	2.1	1.8	42.5	259.0
유상원조	57.5	21.7	9.4	29.0	△0.6	-	117.1
합 계	227.6	47.8	25.9	31.1	1.2	42.5	376.1

\* 기타는 특정지역이 아니라 넓은 지역에 배정되어 배분이 어려운 경우임

- 국가별로는 이라크에 지원이 전체 양자간 ODA의 15.2%(양자간 무상원조의 22.0%)를 차지하였고, 스리랑카, 방글라데시 등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
- 이라크는 2003년 3월 전쟁발발에 따른 무상원조 증가에 힘입어 2003년 이후 우리나라 제일의 ODA 지원 대상국으로 자리 잡음
  - KOICA(48.2백만 달러)와 국방부(8.5백만 달러)가 이라크 전체 지원액의 99.3%를 차지
- 상위 10개국에 대한 양자간 ODA 비중은 54.2%로 작년에 비해 18% 포인트 감소함('04: 74.6% → '05: 72.2% → '06: 54.2%)

### 양자간 ODA의 국가별 지원규모 (순지출 기준)

(백만 달러)

순위	국 가	무상원조	유상원조	합계	
				금액	비중(%)
1	이라크	57.1	-	57.1	15.2
2	스리랑카	7.4	15.3	22.7	6.0
3	방글라데시	4.1	18.0	22.2	5.9
4	인도네시아	20.3	△1.4	18.9	5.0
5	알바니아	0.0	16.9	16.9	4.5
6	케냐	1.1	14.4	15.5	4.1
7	캄보디아	7.4	6.5	13.8	3.7
8	라오스	5.4	8.2	13.6	3.6
9	보스니아-헤르체고비나	0.0	12.9	12.9	3.4
10	중국	6.8	3.3	10.2	2.7
상위 10개국 소계		109.6	94.1	203.7	54.2
기타 120개국 소계		104.6	23.0	127.6	33.9
국 별 배 분 불 능		44.7	-	44.7	11.9
총 합계		259.0	117.1	376.1	100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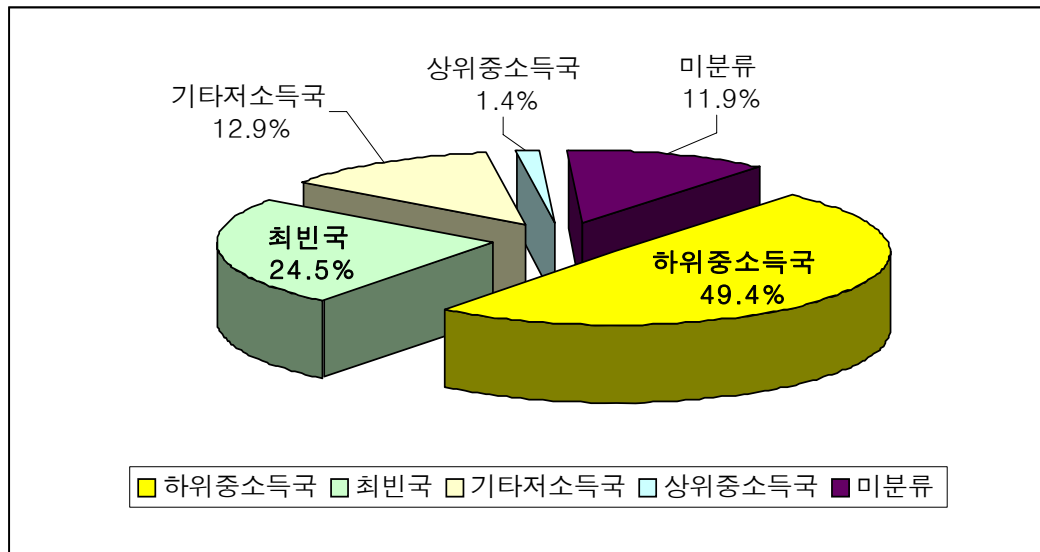
- 소득그룹별로는 하위중소득국(LMIC)에 양자간 ODA의 49.4%가 지원되었고 최빈국(LDC)에는 24.5%가 지원됨
- 전년과 비교하여 최빈국 비중은 비슷하나, 하위중소득국 비중은 7.8% 포인트 감소하고 기타 저소득국비중은 1.5% 포인트 증가함
  - 무상원조는 이라크, 인도네시아 등 하위중소득국(53%) 지원비중이 높은 반면, 유상원조는 방글라데시, 라오스, 앙골라 등 최빈국(47%)과 스리랑카, 보스니아-헤르체고비나, 알바니아 등 하위중소득국(41.3%)에 집중됨

### 양자간 ODA의 소득그룹별 지원규모 (순지출 기준)

(백만 달러)

구 분	최빈국 (UN지정)	기타 저소득국 (1인당 GNI <825달러)	하위 중소득국 (≤3,255달러)	상위 중소득국 (≤10,065달러)	미분류	합계
무상원조	37.1	33.8	137.3	6.0	44.7	259.0
유상원조	55.0	14.5	48.4	△0.8	-	117.1
합 계	92.1	48.3	185.6	5.2	44.7	376.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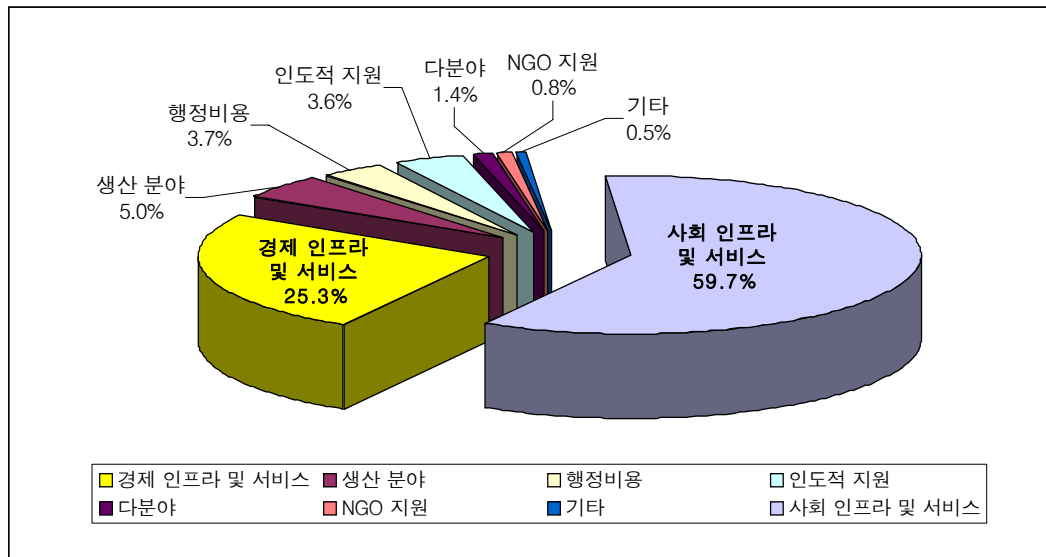
### 양자간 ODA의 소득그룹별 지원비중 (순지출 기준)



#### 4. 분야별 지원규모 (약정 기준)

- 양자간 ODA는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에 59.7%(403.1백만 달러),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에는 25.3%(170.9백만 달러)를 지원
-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는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부문(141.6백만 달러)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, 교육(135.2백만 달러), 식수공급 및 위생(80.8백만 달러), 보건(38.6백만 달러)이 그 뒤를 이음
-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는 교통 부문(99.5백만 달러)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, 통신(65.2백만 달러), 에너지(5.0백만 달러)가 그 다음 순
- 생산 분야는 산업·광업·건설 부문 등을 중심으로 33.5백만 달러가 지원되었으며, 인도적 지원에는 24.6백만 달러, 행정비용으로는 25.3백만 달러가 약정됨

### 양자간 ODA의 분야별 지원비중 (약정 기준)



### 양자간 ODA의 분야별 지원규모 (약정 기준)

(백만 달러)

구 분	프로젝트 원조	프로그램 원조	기술협력	기타	합 계
<b>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</b>	<b>295.6</b>	<b>30.2</b>	<b>74.3</b>	<b>3.1</b>	<b>403.1</b>
교육	94.9	0.2	40.0	-	135.2
보건	23.2	2.1	13.2	-	38.6
인구정책 및 생식보건	-	-	0.5	-	0.5
식수공급 및 위생	79.4	-	1.3	-	80.8
공공행정 및 시민사회	98.0	27.8	12.7	3.1	141.6
기타	-	0.1	6.4	-	6.5
<b>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</b>	<b>145.4</b>	<b>0.5</b>	<b>25.0</b>	<b>0.0</b>	<b>170.9</b>
교통	96.3	-	3.3	-	99.5
통신	48.1	0.5	16.7	-	65.2
에너지	1.1	-	3.9	-	5.0
금융 서비스	-	-	0.4	-	0.4
기타	-	-	0.7	-	0.7
<b>생산 분야</b>	<b>8.6</b>	<b>4.5</b>	<b>20.4</b>	<b>-</b>	<b>33.5</b>
농업·임업·수산업	4.6	0.3	6.9	-	11.8
산업·광업·건설	3.9	4.2	9.2	-	17.4
무역 및 관광	0.0	0.0	4.3	-	4.3
<b>다분야</b>	<b>3.3</b>	<b>0.6</b>	<b>5.3</b>	<b>-</b>	<b>9.2</b>
인도적 지원	-	-	-	24.6	24.6
행정비용	-	-	-	25.3	25.3
NGO 지원	-	-	-	5.3	5.3
기타	0.3	0.2	0.5	2.5	3.5
<b>합 계</b>	<b>453.1</b>	<b>36.0</b>	<b>125.5</b>	<b>60.8</b>	<b>675.5</b>